

순천시, 2024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2024년부터 5년간 사업비 80억 원 투입 상권 살리기 나서

오는 22일 중앙동 천태만상창조센터서 주민공청회 실시예정

순천시가 2024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24년부터 5년간(3년+2년)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순천시 원도심 일원으로 중앙동, 남내동 일원이다.

중앙시장, 원도심 상점가, 지하상가 씨내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곳을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먹거리 특화 골목 조성, 청년 소상공인 유치 및 업종전환, 디지털 전환, 상인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권활성화사업은 『진흥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는 구역 내 상업지역이 50% 이상, 점포가 400개 이상 밀집,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 사업체 수,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되어 전라남도

의 공모 절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으로 선정된다.

순천시 원도심은 순천부읍성터가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상권이 형성된 곳이다. 1990년대까지 '서울의 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순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신도심의 개발, 신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판매 증가 등으로 인구 감소 및 소비 구조가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상가 공실률이 33% 이르는 등 도심 상권 전체가 쇠퇴하고 있다. 시는 이번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서 활기가 가득하고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상권활성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사전절차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2일 중앙동 천태만상창조센터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 의결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전남도에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원도심으로 시민들과 청년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는 행정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건물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상인들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은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첫 매입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제현을 검사를 하고 있다.

보성군,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첫 매입 실시

보성군은 지난 9일부터 품종 혼입 방지를 위해 조성면 소재 가루쌀 생산단지에서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가루쌀을 일반 벼와 구분하기 위해 9일부터 10일까지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매입 예상량은 300톤이다.

가루쌀은 올해 처음으로 매입하는 품종(바로미2)으로, 매입 검사규격은 일반 포대벼보다 1등급씩 상향하고, 제현율은 최저한도가 특등 78%, 1등 74%, 2등 65%, 3등 65% 미만이다.

수분은 수확 후 벼 품질 유지를 위해 수분 함량 기준 최고 한도를 14%로 하향 조정됐으

며, 타 품종 혼입률은 3% 이하가 기준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제분해 가루로 만들 수 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이 음식과 제빵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

밀가루의 대체재로 적합한 품종이면서 6월 말까지 늦은 이앙이 가능해 밀이나 조사료와 같은 이모작 재배에도 유리하다.

보성군은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홍보와 농가 혼동 방지를 위해 가루쌀 출하용 포장재 별도 이용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군, 맨발 산책로 조성 위한 준비 착착

맨발로!(맨발路) 조성 통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고흥군은 집중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더해 면역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맨발로!(맨발路)'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맨발 걷기는 지압(Reflexology)과 점지(Earthing) 효과 등 발바닥 지압 효과를 유발하며, 인간 신체와 지구가 만나는 점지가 혈액 순환에 긍정 역할을 촉진함에 따라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고, 고혈압 당뇨에 특효 대증매체에 홍보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 마사토길, 모래길을 조성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군은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읍면 소재지 주변과 주요 걷기 명소를 대상으로 읍면별 사업 대상지 전수 조사를 거쳐 지난 9일 군청 휴양실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실단체소장 및 읍·면장이 함께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고흥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2024년 6월까지 맨발 산책로 시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적합한 토질을 찾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맨발로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3년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 원을 활용해 고흥읍 동촌마을 4차선 고가도로 아래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중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 '우수야영장' 선정

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이 '2023 공공 우수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분야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지자체·공공 운영 야영장 599개소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가족(어린이)친화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등 4개 분야에서 총 20곳을 선정했다.

선정평가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운영관리, 위생관리 등 30가지 지표의 서류평가와 합동 안전평가 및 캠핑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친환경 야영장 분야에 선정된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캠핑카 오퍼수 처리시설인 덤프 스테이션과 전기차충전소 등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용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탐방로 등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 등록야영장 현판을 수여하고 2024년 말까지 1년간 고캠핑,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한 선정된 야영장은 추후 캠핑 관련 행사 시 개최장소로 선정 등에 우대된다.

임경양 휴양림과장은 "이번 우수야영장 선정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산림복지 니즈에 맞춰 운영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사람과 자연을 잇다'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 공청회 열어

여수시가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수의 미래 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공청회는 '섬과 도시를 연결하고 시대와 세대를 연결해 세계로 나아가는 여수 경관'이라는 주제로 시민, 관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관계획 재수립(안) 구성 설명, 교수 등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적용 가능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이다.

'Link, YEOSU CITY'를 중심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경관 형성 등 4가지 목적을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통한 경관 관리방안·요소 및 구조별 경관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관계획(안)은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5일 까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방문, 우편, 전자우편(semantic@korea.kr), 팩스(061-659-5833) 중 하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